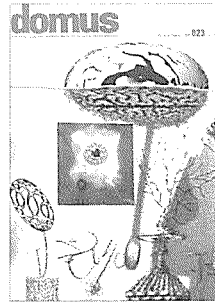


- Domus
- Architectural Review
- World Architecture
- Architectural Record
- 건축문화
- a+u
- 신건축

## Domus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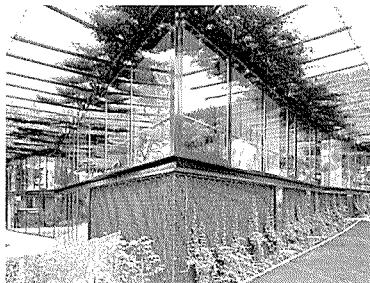
지금까지 Domus는 매달 주제를 정해 관련 작품들을 소개했으나, 본호부터는 특정 건축가와의 인



터뷰로 시작해 작품 소개로 이어짐으로써 보다 유동적인 편집 방향을 잡았다. Herzog & De Meuron, Portzamparc의 최신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디자인 부문에서는 Marc Newson의 인터뷰 및 작품 세계, 그리고 식품 관련 상품들의 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 ■ 작품

▶ Herzog & De Meuron의 Basle Laufen Ricola 마케팅 사무실



주위 자연 환경을 건물 디자인에 최대한 이용한 이 작품은 다양한 각도의 유리면들로 둘러싸여 있어 저마다 다른 자연 풍경을 반사해 보여준다. 돌출되어 있는 지붕면에는 식물 줄기가 자라도록 되어 있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전체 이미지가 변화하게 된다. 자연을 이용해 건물의 내외부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Christian de Portzamparc의 뉴욕 LVMH 타워 빌딩



다양한 형태 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Portzamparc의 새 빌딩은 기존 뉴욕 건물들과 상이하게 다른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일반 건물들이 수직적으로 구분된 외관을 갖고 있는 반면, 이 빌딩은 방사형으로 꽃잎이 피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기존에 선호하던 재료인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도입한 흰색과 초록색으로 표면 처리된 유리면은 주위 건물들에 대한 반사율을 최소화하면서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자아낸다. 미스의 시그럼 빌딩 이후 유럽 건축가에 의해 뉴욕에 만들어진 작품 중 가장 독특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밖에 ▶ Tamás Karácsony, Péter Janesch의 헝가리 Perbál 장애인 재활원, ▶ Mauro Galantino의 피렌체 Ugnano Mantignano 공동주택 계획, ▶ Zvi Hecker의 독일 Duisburg 유태인 문화원, ▶ Philippe Starck의 런던 St. Martins Lane Hotel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이벤트

작년 글래스고우 시에서는 “글래스고우 1999, 문화와 디자인의 도시”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었다. 현재 문화와 도시적 삶에 있어 건축과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살펴본 이번 행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

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각 분야의 과거 업적 및 유물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회와 아울러 미래 주택상의 제시 등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한 해로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그 영향이 반향하도록 조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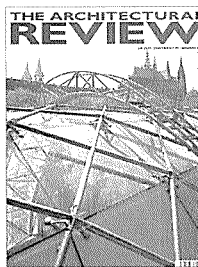
■ 기타

▶디자이너 Marc Newson과의 인터뷰, ▶음식물 관련 제품 디자인, ▶Innsbruck의 근대 건축 목록 및 지도, ▶Kenneth Frampton의 Studies in Tectonic Culture, Behnisch & Partner 작품집 등 저서에 대한 소개 및 비평 등이 게재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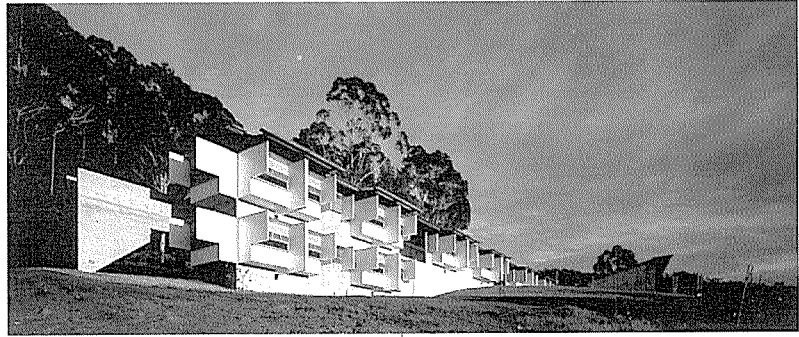
1월호

새 밀레니엄을 여는 첫 호인 만큼 건축의 재생성 및 환경 친화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작품 부분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그린 건축을 특집으로 설정하였다. 비트루비우스가 2000년전 건축 십사에서 견고, 편리, 즐거움의 3원칙을 제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해 복원이라는 요소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린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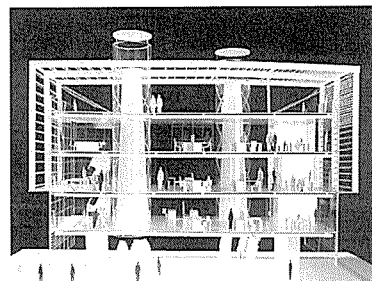
▶Glenn Murcutt, Wendy Lewin & Reg Lark의 오스트레일리아 West Cambewarra 교육 회관



West Cambewarra 교육회관

Murcutt의 최신작인 이 작품은 자연적 조건이 아주 잘 보존된 환경에 대해 최소한의 인공적 첨가를 추구했다. 넓게 펼쳐져 돌출된 지붕을 통해 주위 평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형태적으로 부각된 차양을 통해 건물 내부의 환경 조건을 제어하고 있다. 나무, 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자연 색채를 그대로 살림으로써 주위 수목과 어우러지는데 성공하고 있다.

▶Mario Cucinella Architects의 이탈리아 Catania 사무실 프로젝트



중동 지역의 냉방 시설 방식을 응용한 Cucinella의 사무실 계획안은 건물 중간에 통풍 타워들을 삽입시킴으로써 사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나치게 기계화된 사무실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외에 ▶Eva Jiricna Architects의 프라하 오렌지 농장, ▶Baumschlager & Eberle의 오스트리아 M der 학교, ▶Gapp Architects, David B. Lewis의 남아프리카 케이

프타운 방문객 센터, ▶Ruy Ohtake의 브라질 Ubatuba 교육 회관, ▶BRT Architekten의 독일 Rellingen 산업 건물,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C. Kohlbecker의 독일 Sindelfingen 다지인 센터, ▶Enrique Browne의 칠레 산티아고 건축가 사무실,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역사

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리처드 로저스의 밀레니엄 돔이 문을 연 시점에서, 영국이 계획했던 이전 건축 이벤트인 1951년의 Festival of Britain을 돌아보았다. 르 꼬르뷔제의 영웅주의와 스웨덴식 경험주의의 경합의 장이 되었던 이 행사에 대해 그 기원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 인테리어 디자인

각각 유리 와 석재를 이용하여 근대적인 미니멀리즘 계열의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Eva Jiricna Architects의 런던 New Bond Street 보석 가게, ▶Claudio Silvestrin Architects의 파리 Place Vendome 가게가 소개되어 있다.

■ 저서 비평

▶건축과 에로티시즘의 관계를 다룬 Francesco Colonna의 Hypnerotomachia Poliphili, ▶북경 도시 계획의 현황을 소개한 Wu Liangyong의 Rehabilitating the Old City of Beijing 등 저서들에 대한 간단한 비평

이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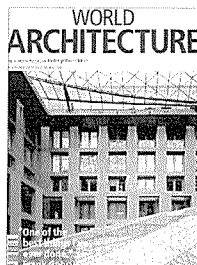
■ 기타

▶Bernard Tschumi의 뉴욕 콜롬비아 대학 학생관에 대한 비평, ▶레바논 사태로 파괴된 베이루트에서 일고 있는 도시계획 붐, ▶Eric Owen Moss, Thom Mayne, Coop Himmelblau 등 저명한 건축가들이 참가했던 쿠바의 하바나 프로젝트 1996 소개 등이 실려있다.

### Worl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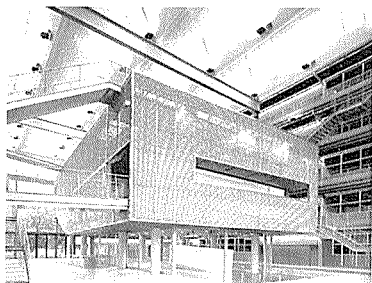
3월호

도시를 단위로 최근 건축 경향을 살펴보는 도시 특집에서는 Potsdamer Platz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베를린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서 각 나라들이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규모 교통 허브 프로젝트의 현황과 전망을 다루었다.



■ 신작 소개

▶Bernard Tschumi의 프랑스École d'Architecture de Marne-la-Vallée



파리 교외에 위치한 이 학교 건물은 물을 달린 체계가 아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Tschumi의 건축관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대규모 건물군의 제1단계로 완공된 이 건물은 구체적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다양한 공간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내부 논리로부터 외형이 결정되어 나가는 방식을 따랐다. 거대한 중정에 위치한 철망으로 둘러싸인 매스는 대형 강의 실이며, 여러 브리지를 통해 건물의 각 공간으로부터 직접 연결되고 있다.

■ 도시 특집 - 베를린

베를린은 새천년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Potsdamer Platz 재개발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년간 베를린 만큼 건축과 도시하부 조직에 많은 투자를 한 도시도 드물다. 하지만 베를린에 유태인 박물관을 지은 Daniel Libeskind는 좀 다른 의견을 보이는데, 양적으로는 활발해 보였을 지 모르지만 신보수주의적 경향의 작품들만 양산해내었을 뿐 도전적인 모멘텀은 오히려 쇠퇴해버렸다고 평했다.

최근 베를린에 신축된 건물들로 Frank Gehry의 Pariser Platz DG Bank, ▶Helmut Jahn(Murphy/Jahn)의 Potsdamer Platz Sony Center, ▶Mueller/Reimann Architects의 독일 외무부 청사, ▶Dominique Perrault의 수영장 및 자전거 경주장 등이 소개되었다.

■ 교통 허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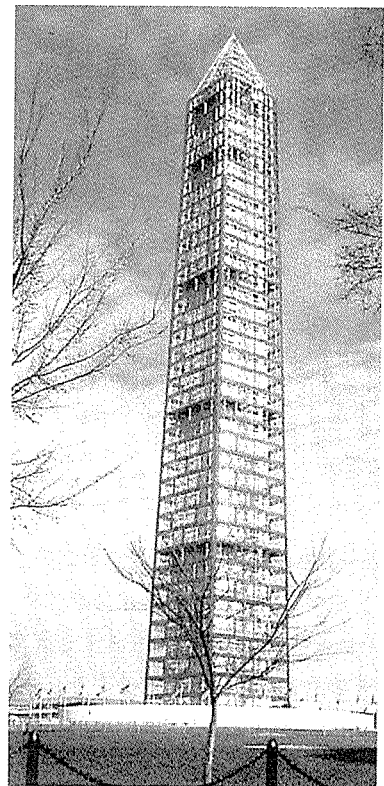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들은 금세기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로 환승 공항 등 교통 허브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Foster and Partners의 Chek Lap Kok 국제공항, ▶유럽 전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는 Frankfurt, ▶덴마크의 해상 교량 Great Belt Fixed Link, ▶Ben van Berkel의 네덜란드 Arnhem 환승 시설 계획, Rem Koolhaas의 네덜란드

북해 해상 공항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 저서 비평

▶오브제가 아닌 도시적 경험을 설계한 Jon Jerde의 작품들을 소개한 You Are Here, ▶Aldo van Eyck 작품집, ▶미래 지향적인 건축 계획안들을 간략히 집성한 Visionary Architecture, ▶Spiro Kostof의 The City Assembled - The Elements of Urban Form Through History 등 저서에 대한 소개 및 평가가 게재되어 있다.

■ 기타



Michael Graves의 워싱턴 모뉴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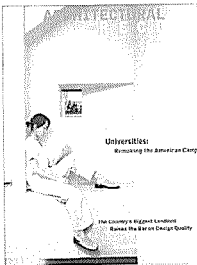
분석 분야에서는 ▶올 유럽의 9개 도시에 주어진 유럽 문화 도시상, ▶지난 50년간 영국에서 독일 건축가의 작품이 이어지지 못한 등 국제화 시대에 있어 교류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스페인 Ceuta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Ivaro Siza의 문화센터 계획안 취소 소식, ▶Toyo Ito의 첫 번째 해외 작품 계획, ▶Oscar

Niemeyer의 첫 번째 소설 출간 소식, ▶Renzo Piano의 Kansai 공항 증축 계획, ▶영구 보존될 계획이 추진 중인 Michael Graves의 워싱턴 모뉴먼트 수리용 설치물 이야기 등이 다루어져 있다. 아울러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색채 디자인, ▶새로운 마감 재료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 Architectural Record

2월호

프로젝트 코너에서는 최근 붐이 일고 있는 미국의 대학 시설물 건축의 최신작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능별로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빌딩 타입 스타디오에서는 호텔 건축 개조를 다루고 있다. 과학 및 기술 부분에서는 내진 설계의 최근 경향 등을 소개하였다.

### ■ 실무 문제 - 설계 경기 제도에 대하여

설계 경기는 건축 사무소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며, 당선자들의 입지를 단기간에 확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심사위원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당선작이 나오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작품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도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점이 매우 불합리하며,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안이 마련된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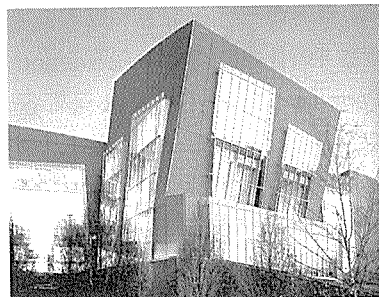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 경기 주최측과 상급, 일정,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 비평 - 스타 건축가 제도가 과연 좋은 디자인을 낳을까?

유명인에 의해 전반적인 흐름이 결정되는 문화계의 풍토 속에서 건축가들은 그리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건축, 건축가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거나 맥락을 벗어난 기괴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 뿐인 것 같다. 몇몇 건축가들만이 조명을 받는 것은 다양한 건축 문화를 만드는 데는 역으로 작용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미국 캠퍼스 건축

대학들의 전통이 깊어지면서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1999년에만 44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팽창에 의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사라져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배치 계획과 조경 측면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 개별 건축물로는 ▶Frank O. Gehry and Associates의 신시네티 대학 Vontz Center, ▶Bohlin Cywinski Jackson and Architecture +의 매서추세츠 주 Simon's Rock College Fisher Center, ▶Kieran Timberlake & Harris의 예일 대학교 Berkeley College가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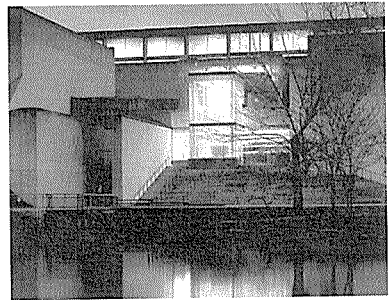


신시네티 대학 Vontz센터

### ■ 빌딩 타입 스타디오 782 - 부띠끄 호텔

1990년대 초 바닥을 쳤던 호텔 건축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작으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부띠끄 호텔은 이 분야에서 건축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예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들로 ▶Koning Eizenberg Architecture의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즈 Avalon Hotel, ▶McCluer and Antunovich Associates의 시카고 Hotel Burnham, ▶Mallet Inc.의 시애틀 Ace Hotel, ▶Lemay Michaud Architecture Design의 몬트리올 Hotel Le Germain이 소개되어 있다.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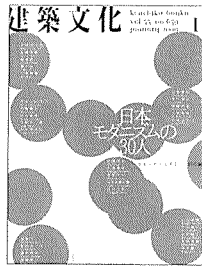
매서추세츠대학 예술관

▶미국 공공 건물 건축계에 일고 있는 디자인 개선 경향, ▶사진 비평은 Kevin Roche, John Dinkleloo의 매서추세츠 대학 예술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축 과학 및 기술 부분에서는 ▶내진 설계의 새로운 경향, ▶작은 규모의 설계사무실로 하여금 대규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디지털 도구들, ▶조명 분야에 대한 새 소식을 다루었다.

## 건축문화

1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모더니스트 再考 II- 국내편'으로서 『일본 모더니즘의 30인』이다. 나카무라



타츠타로(中村 達太郎)에서 무라노 토고(村野藤吾), 마에카와 쿠니오(前川 國男)을 거쳐 당게 겐조(丹下健三)에 이르기까지 1880년대에서 190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어온 건축가와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30인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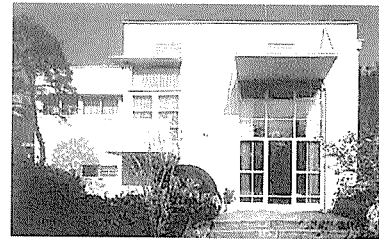
### ■ 특집-일본 모더니즘의 30인

▶ 이번 특집은 지난 99년 5월호에 소개된 『모더니즘의 33인 모더니스트 再考 I- 해외편』의 자매편이 된다. 일본에서의 모더니즘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을 주로 집중 조명하는 순서이다. 소개되는 사람들은 주로 1880년대에서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로, 요시다 이소야(吉田 五十八), 당게 겐조(丹下健三)등 통사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건축가들과 이에 덧붙여 내무성 등에서 활약한 조직내 건축가들, 그리고 연구자, 출판 미디어에서 활동한 사람들 등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 폭넓은 시점으로 모더니즘 형성에 기여한 사람들 조명하고 있다. 일본의 大正期 이후 유럽의 모더니즘과 접하게되면서 나타난 일본 건축계의 변화와 모더니즘에 대해 촉발된 '문제' 들을 함께 다루어 보는 특집으로 21명이 30인의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논설을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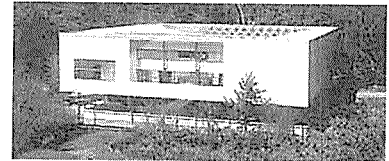
▶ 이 특집에서 다루고 있는 모더니스트들은 일본의 건축사자들이 '일본의 근대건축'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부분과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근대건축'이라는 단어는 소위 '고전적 모더니즘'과는 다른 뜻으로, 건축이 근대성을 띠기 시작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호 개방 이후부터의 역사를 주로 서술하고, '고전적 모더니즘'이라 불리는 모더니즘 건축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그 서술을 별로 할당하고있지 않은데 반하여, 이번 특집에서는 1910년대부터 주로 활동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추구한 작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모더니즘이 일본에 도입되어 자기화하는 과정과 유럽과 어느 정도 동시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가늠해 보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으며 현재의 숙제 또한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구성이 되고 있다.

▶ 21인의 論者들이 그 활동을 서술한 30인은 다음과 같다. 나카무라 타츠타로(1860-1942), 사노 토시히카타(1880-1956), 스나미 타카시(1887-1980), 후지이 코지(1888-1938), 콘 와지로(1888-1973), 안토닌 레이몬드(1889-1976), 무라노 토고(1891-1984), 고야마 마사카즈(1892-1970), 우에노 이사부로(1892-1972), 이시모토 키쿠지(1894-1963), 아마다 마모루(1894-1966), 요시다 이소야(1894-1974), 쿠라타 치카타다(1895-1966), 모리타 케이이치(1895-1983), 호리구치 스테미(1895-1984), 이시하라 켄지(1895-1984), 이마이 켄지(1895-1984), 이토오 마사부미(1896-1960), 쓰치하라 카메키(1897-1996), 키시다 히데토(1899-1966), 사토오 타게오(1899-1972), 야마코시 쿠니히코(1900-1980), 사카무라 준조(1901-1969), 카와키타 렌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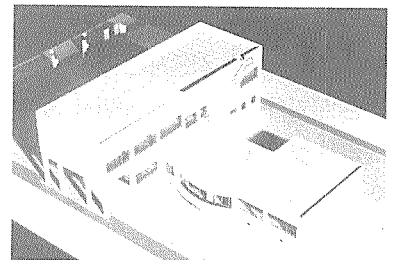
로(1902-1978), 야마구치 분조(1902-1978), 타니구찌 요시히로(1904-1979), 시라이 세이이치(1905-1983), 마에카와 쿠니오(1905-1986), 코사카 히데오(1912-), 당게 겐조(1913-). 이들 30인에 대한 논설을 21명이 나누어 집필하였으며, 사진과 도면 등 도판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나, 도판자료 보다는 논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다.



쓰치하라 카메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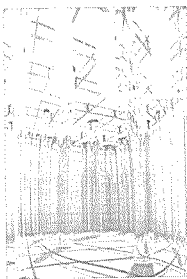


사카무라 준조



마에카와 쿠니오

이번 호의 특집은 지난 1월호에 이어 『Image of Glass(유리의 이미지)』의 2번째 순서로 꾸며졌다. 근대건축이후 건



축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유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이미지를 최근의 작품들로 살펴보는 순서가 되고 있다. 2월호에서는 12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1월호와 2월호에서 모두 유리뿐만 아니라 얼음과 같은 투명성을 지니는 재료로 구성된 건축공간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 특집 - Image of Glass(유리의 이미지) II

▶ 지난 호에 이어 유리로 구성된 공간을 지닌 작품을 소개하는 특집의 두 번째 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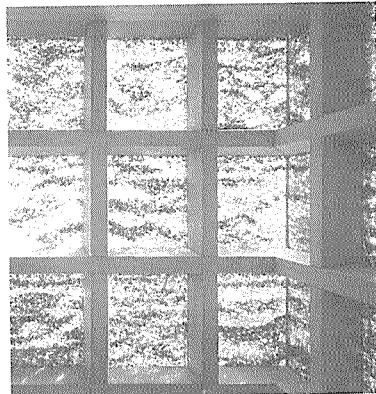
유리는 20세기 건축에 가장 영향을 끼친 물질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유리가 그 다음세기에 들어와서는 컴퓨터의 힘을 얻어 더욱 혁신적인 제안의 가능성을 갖게되었다. 유리특유의 투명하고 변질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섬세함은 그대로 유리의 성질로서 일 반화되어 있지만 건축가, 구조가(構造家), 유리생산자, 시공자는 그 성질이 갖는 부가가치에 관심을 두면서 종래 유리가 갖고있던 이미지를 차차 바꾸어가고 있다. 이것은 시각효과와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건축이 갖는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리가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은 그 환경에 따라 때로는 시적이며,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게 보는 이의 심성에 다가가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현실

세계와 유리된 가상세계나 지적인 공간의 이미지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편에 걸친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유리건축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자연의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유리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목재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져있는 유리라는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 소개된 작품들을 보면 작가별로 다양한 유리의 얼굴들을 연출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스칼 귀나르와 스테판 사네르(Pascale Guignard & Stefan Saner)는 녹색의 유리파편들을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채워 넣은 유닛을 창문으로 쓴 고속도로변의 체폴을 디자인하였다. 사방의 벽면을 모두 이 창문이 뒤덮어, 빛이 이 유닛을 통과하면서 녹색의 빛들을 밤·낮에 따라 건물의 밖과 안으로 쏟아내고 있다. 육중한 조적조의 벽으로도 둘러싸인 중정에 살며시 돌출되어나온 단층 건물인 카페 브라보는 날바흐+날바흐(Nalbach+Nalbach)가 디자인하였다. 중정쪽으로 면한 벽을 모두 유리로 마감하고 반대편 내부의 벽은 거울을 설치해 카페의 내부공간을 중정의 한 가운데로 옮겨놓았으며, 불투명한 조적조의 주변 벽들과 투명하면서도 때때로 반사하는 유리의 표면은 대조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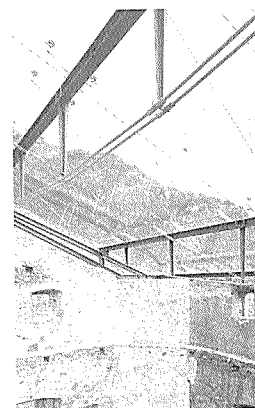
로베르 단츠(Robert Danz)의 고성(固城)에 덧붙인 유리지붕은 고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이나 증축에 자주 쓰이는 유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나가쿠라 타케히코(長倉威彦)는 슈세베 때라니와 피에트로 링게리의 유명한 미완성 작품 단테움(Danteum)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단테움의 '천국의 방'에는 100개(10×10)의 유리 기둥으



파스칼 귀나르와 스테판 사네르의 「체폴」



날바흐+날바흐의 「카페 브라보」



로베르 단츠의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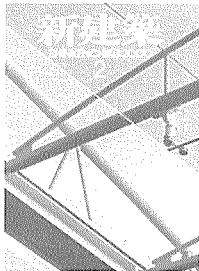
로된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설계당시 무솔리니가 전쟁에 패하지 않았어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을 유리기둥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컴퓨터로 재현해 내고 있다(이번 호 표지그림). 이밖에도 이토오 도요(伊東豊雄), 스테판 빌과 리벤 악티게일(St phane Beel and Lievan Achtegael), 에릭 반 에게라트(Erick van Egeraat), 프레스톤 스캇 코헨(Preston scott Cohen), MVRDV, 사다르+부가 아키텍츠(Sadar+Vuga Architects)

등의 유리파사드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 신건축

2월호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아즈마



환경건축연구소의 墨郷의 方庫(쿠르고 도서관), 시미즈 마사히로(横川正弘)와 하야시 키미코(林公子)의 아사바 여관 등 목조로 된 일본 전통건축의 분위기를 살린 작품들과 소우이치 하야루(承一針生)건축연구소의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Workshop DG의 Old M Cabin 등 현대적 감각과 동양 건축의 공간감이 혼용된 작품들을 포함해 1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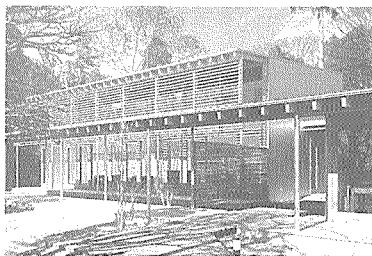
### ■ 작품

▶미즈 마사히로(横川正弘)와 하야시 키미코(林公子)의 아사바 여관은 350년의 역사를 지니는 아사바 여관의 증축이다. 산림 속에 자리잡은 이 여관은 일본 전통극의 무대를 기존 건물로 갖고 있으며, 객실의 수는 적으나 일본의 전통적인 타다미방의 객실을 마련해두고 있다.



아사바 여관

▶소우이치 하야루(承一針生)건축연구소의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는 모더니즘 건축의 흔적과 일본 전통건축 모두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시골의 농지에 둘러싸인 이 설계사무소 건물은 도심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라이프의 탈라이센을 연상케한다. 건축가의 주택이 별도로 연결되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주택의 동쪽에 긴 장방형의 사무소 건물이 자리잡고 이 사무소 건물은 서쪽으로 굽어지며 주택을 감싸듯이 'ㄱ' 자모양으로 되어있다. 사무소건물에서 굽어져나온 부분은 데크테라스로, 주택부분의 테라스와 나란히 위치, 그 사이공간의 독립성을 키워 주택 정원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 주택과 사무소 건물의 연계성을 높여 묘한 어우러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용된 재료는 주로 금속재와 목재로, 일본 목조구조물의 분위기와 모더니즘 공간을 함께 연출해내고 있다.



나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Workshop DG의 Old M Cabin은 후지산 남쪽에 펼쳐진 경사면에 콘크리트로 된 기단부와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목조 프레임의 건물을 얹은 건물. 침실-부엌 및 식당-욕실-침실 순서의 방들을 일렬로 배치했다. 특이한 점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목조의 건물이 들어가고 각 방들을 연결하는 복도는 그 사이공간에 계획했다는 점. 이 복도는 테라스처럼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있고, 식당은 창으로 구획된 실내식당과 외부로 개방된 실외식당이 연결되어 위치하고있어, 각 방으로 이동시에는 항상 외부공간을 거

쳐서 이동하게 되어있다.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는 그래픽 디자이너 부부. 부부 단 둘이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도심에 있는 기존의 주택 외에 별장 혹은 아틀리에 용도로 이 건물을 의뢰하였다.

### ■ 기타

▶요시다 이소야(吉田五十八)의 주택



요시다 이소야(1894-1974)는 일본의 근대건축가로서, 특히 주택분야에서 일본 전통건축을 계승하면서 근대건축을 실현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주택작품중의 하나인 『猪股邸』는 재단법인노무행정연구소의 이사장을 지낸 猪股猛이라는 사람이 1967년에 요시다 이소야에게 설계를 의뢰한 것이다. 113평의 건평을 갖는 이 주택은 1999년 10월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주택에 대한 사진과 함께 당시 요시다의 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한 野村加根夫가 제공한 이 주택의 눈여겨볼 부분과 디테일 등의 설명을 실고 있다.

▶이상의 실현-20세기의 모던 하우스 신건축의 자매지인 『a+u』에서 금년의 봄과 여름 특별판인 「이상의 실현-20세기의 모던 하우스」라는 특별판을 계획하면서 편집중인 주택들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들을 소개하고 있다.